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한사전 개선을 위한
영어동사 ‘win’의 명사연어와
한국어 번역 유형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손 수 진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한사전 개선을 위한
영어동사 ‘win’의 명사연어와
한국어 번역 유형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손 수 진

손수진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21일



주 심 언 어 학 박 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 어 학 박 사 John Stonham (인)

위 원 언 어 학 박 사 김 은 일 (인)

목 차

Abstract	ii
I .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2.1 언어의 정의 및 선행 연구	5
2.2 동사 ‘win’ 의 사전적 정리 및 분석	7
III ‘win’의 의미와 유형	11
3.1 ‘win’의 의미별 빈도	12
3.2 ‘win’의 의미 유형별 언어	13
3.2.1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	13
3.2.2 받다/얻다	18
3.2.3 따다/따내다	24
3.2.4 쟁취하다	26
3.2.5 당첨되다	27
3.2.6 잡다	28
3.2.7 확보하다	30
IV 결론	32
참고문헌	35

A study of the Noun Collocations of the English Verb 'win'
and the Patterns of Korean Trans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nglish-Korean Dictionary

Son, Su Ji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llocations of the English verb 'win' and categorize the appropriate translations of 'win' for Korean students. It focuses on finding how to translate the English verb 'win' to Korean words. This study is based on the English corpus program "COCA" and used the Korean corpus program "KOKOMA" for translation. This study classifies COCA database ENTRIES by Korean translation in order of decreasing frequ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in' should be translated to Korean in several different ways and could be an addition to an English-Korean dictionary.

I hope this study helps Korean students understand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English verb 'win' more easily, and that in the future, more studies will deal with understanding collocations of words with complicated translations.

I. 서론

‘win’이라는 영어 동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이지만 우리나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들은 영어 동사 ‘win’을 기본 의미인 ‘이기다’로만 학습하므로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에게 ‘전쟁, 게임 등에서 이기다’를 영어로 번역할 때 무슨 동사를 사용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어려움 없이 ‘win’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금메달을 따다’, ‘복권에 당첨되다’, ‘명성을 얻다’ 등의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때 무슨 동사를 사용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는 영어 동사 ‘win’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자.¹⁾

(1) a. we can win this game if we do these things well.

b. 우리가 이것들을 잘하면 이 게임에 이길 수 있어.²⁾

1) ‘코퍼스’란 언어의 모듬(a collection of text)으로 ‘말모듬’이나 ‘말뭉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대적 의미의 코퍼스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형태의 텍스트로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권혁승,2008).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든 예문 및 자료는 미국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의 Mark Davies교수가 구축한 현대 미국영어 코퍼스로서 그 규모가 현재 약 4억2천5백만 단어에 이르는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미국영어 코퍼스인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약칭 COCA(<http://corpus.byu.edu/coca/>)에서 발췌한 것임.

2) 본 논문의 모든 영한 번역은 꼬꼬마 세종 말뭉치 및 google 검색을 근거로 하여 필자가 번역한 것임.

- (2) a. Hugh McCutcheon is going to the London Olympics to try to win gold for his team.
- b. 휴 맥커천은 그의 팀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러** 런던 올림픽에 갈 거야.
- c. *휴 맥커천은 그의 팀을 위해서 **금메달을 이기러** 런던 올림픽에 갈 거야.

위 예문 (1a)의 ‘win’ 은 명사언어 ‘game’ 과 결합하여 (1b)에서와 같이 ‘게임에 이기다’ 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었다. 그러나 예문 (2)의 (2a)의 경우는 ‘win’ 이 ‘gold’ 와 결합 하는데 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인 ‘금메달을 이기다’ 가 아니라 ‘금메달을 따다’ 의 의미로 번역되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고, 예문(2c)와 같이 ‘금메달을 이기다’ 라고 번역되었을 때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해 비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년간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어휘인 ‘win’ 조차도 적절한 상황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영어 학습자들이 보통 어휘 학습을 할 때 영어사전을 이용하는데 기존 영어사전의 내용이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간결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기 보다는 너무 장황한 내용이 두서없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단어 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어휘를 공부할 때에는 영어사전을 참조하게 되는데 이 때 의미학습자들이 사전에 첫 번째로 나열되어 있는 대표 의미만 학습한 채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이화진 2013). 즉, 학습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중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의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 버리고 학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양한 의미들의 쓰임을 원어민이 아닌 이상 직관적으로 습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연어능력의 부족을 또 다른 이유로 들 수 있는데 (Lewis,1997)는 연어는 자의적인 것이며, 원어민 화자는 연어(collocation)³⁾를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직관을 가지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들은 연어를 반드시 외우거나 사전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의미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연어지식의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어학습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기존의 여러 가지 영한사전에서는 영어동사 ‘win’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제시된 내용이 영어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혹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영어 말뭉치 자료인 코퍼스 COCA(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어동사 ‘win’과 결합하는 명사언어들을 추출하고 한국어 말뭉치 꼬꼬마 세종 말뭉치⁴⁾ 프로그램과 google 검색을 통해 영어 명사언어의 우리말 의미와 결합하는 동사언어를 분석하여 그 의미들을 사전적으로 간결하게 나열해 영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언어(collocation)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연어에 관한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영어동사 ‘win’의 기존 사전들에 제

3) 연어(Collocation)의 개념은 2.1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4) 한국말 말뭉치 검색 사이트(<http://kkma.snu.ac.kr>), 약칭 꼬꼬마

시되어 있는 의미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3장에서는 COCA를 이용하여 추출한 ‘win’ 과 결합하는 명사언어를 우리말로 번역되는 의미별로 분류하고 그 쓰임과 유형을 각각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론의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어사전에서 ‘win’ 의 의미가 어떤 순서로 나열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인 연어(collocation)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 후 현재 영어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영한사전들의 ‘win’의 정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연어의 정의 및 선행연구

연어란 몇몇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같이 사용되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상’과 ‘세계’는 뜻이 거의 비슷하지만, ‘어머나 세상에!’라고 말하지만 ‘어머나 세계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역시 ‘어머 웬일이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쩐 웬일이니!’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뿔싸 웬일이니!’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연어는 익숙하게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관용 표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언어 현상이며 어휘들이 서로 어울려서 결합하는 데에는 아무렇게나 가능한 것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체계화 시킨 것이 연어 정보이다(김종현 2009). 이와 같이 두 단어 이상의 관용적인 결합인 ‘연어(collocation)’는 라틴어의 ‘with’라는 의미를 가진 ‘cum’과 ‘place’를 의미하는 ‘locus’의 합성어로 ‘to place together’을 의미한다(박현숙 2013). 또한 ‘연어(collocation)’에 대해서 롱맨 사전에

서는 ‘the way in which some words are often used together, or a particular combination of words used in this way’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함께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의 원리 혹은 그런 원리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특별한 결합’ 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연어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데 최초로 연어의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서로 결합하는 단어들의 조합’ 이라고 정의내린 Firth(1957)이다. 그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연어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 내렸다. Cater(1998)는 연어를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단어집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 라고 하였고, Kjellmer(1987)는 ‘문법적으로 제대로 짜여있는, 동일한 형태로 1회 이상 나타나는 일련의 단어들’ 이라고 하였으며 Sinclair(1991)은 ‘텍스트 내의 짧은 어간에서 두 단어나 그 이상의 단어가 빈번하게 함께 발생하는 현상’ 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Lewis(1993)은 ‘그 언어를 쓰는 화자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어 하나의 말뭉치처럼 인식되어지는데 무작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쓰이는 빈도가 높은 단어들’ 이라고 연어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연어는 다양한 기준으로 학자들에 의해 분류되었는데 Sinclair(1991)은 문법적 요소와 어휘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받아 들어 연어를 상향언어(upward collocation)와 하향언어(downward collocation)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Carter(1987)은 문법적 연어와 어휘적 연어로 구분하였고 Lewis(1997)은 연어를 강도에 따라 강 연어(strong collocation), 약 연어(weak collocation), 중강언어(medium strong collocation)와 보통언어(common collocation)으로 나누고 중강언어가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라고 주장했다. 또한 Benson, Benson & Ilson(1997)은 연어를 어휘적 연어(lexical collocation)와 문법적 연어(grammatical collocation)로 분류하였는데 문법

적 언어는 내용어(content word)인 명사, 동사, 형용사와 기능어(function word)인 전치사, 부정사의 결합이며 어휘적 언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내용어의 결합으로 다음 7가지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동사+명사’, ‘형용사+명사’, ‘명사+동사’, ‘명사+명사’, ‘부사+형용사’, ‘동사+부사’로 나눈다. 본 연구에서는 Benson, Benson & Ilson(1997)의 언어 분류 중 동사의 의미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동사+명사’ 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영어동사 ‘win’의 명사 목적어를 이용하여 어떻게 번역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언어에 관한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퍼스 언어학의 실제 및 응용(권혁승 2008), finish와 end의 의미와 언어 비교연구(심지영 2010), 대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학생들의 영작 실력 및 영어 능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한 연구(김윤정 2005),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국 고등학생의 ‘-ic/-ical 형용사+명사’ 언어 능력에 관한 연구(정연창 2008) 등이 다수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영한사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영한이중어 사전의 대응어 고찰에 관한 연구(정영국 2007)과 영어 동사 ‘pick’의 목적어 언어분석을 통해 우리말과 대응 비교한 연구(이원주 2013) 및 형용사 ‘strong’의 명사 언어분석을 통해 사전의 개선방안을 연구(이화진 2013)등이 있다.

2.2 동사 win의 사전정리 및 분석

이 절에서는 영어 동사 ‘win’의 우리말 의미를 기존의 영한사전을 이용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존 사전에 나열된 우리말 의미들의 순서와

특징 및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대표적인 영한사전인 동아프라임, YBM(Si-sa), Essence 3종의 정의를 정리한 다음 표를 살펴보자.

〈표1〉 동사 ‘win’에 대한 사전별 내용

동아 프라임	YBM(Si-sa)	Essence
1. (싸워서) 이기다, 2. <상품 · 승리 · 1위 등을> 획득하다, 이겨서 얻다; 노력해서 얻다(gain, obtain) 3. <생활의 토대가 되는 양식을> 벌어들이다 4. <명성 · 칭찬 · 신망 등을> 얻다, 떨치다 5. <장소 · 상태 등에> 이르다 6. (곤란 등을 물리치고) 달성하다, 도달하다 7. <호의 · 우정 · 동정 · 애정 등을> 얻다 8. ...의 마음을 사로잡다, 설복하다 (persuade) 9. [채광] <광맥을> 찾아 파내다, 채취하다.	1. <전쟁 · 싸움 · 경쟁 · 내기 따위>에 이기다, 승리하다 2. (~에서) <승리 · 상품 · 선수권 따위>를 얻다, 획득하다, 타다, 따다; <돈>을(걸어/ ...에 게서) 따다 3. (노력의 대가로서) 일용할 양식 따위>를 얻다, 입수하다, 벌다 4. (노력하여) <명성 · 인기 등>을 얻다, 떨치다; <신뢰 · 지지 · 애정 · 친구 등>을 얻다; (사물이) <명성 등>을 (남에게) 얻게 하다 5. ...을(노력하여) 완수하다, 해내다, 잘하다 6. (노력하여) ...에 다르다	1. (경쟁, 경기 따위에 서) 이기다 2. 쟁취(획득)하다 3. (노력해서) 손에 넣다, 얻다, 확보하다 4. 친구(결혼 상대)를 얻다, (적을) 만들다, ...의 지지를(애정을, 결혼승낙을) 얻다. 5. (아무를) 설득하다, 설복시키다 6. (주장 따위를) 남에게 납득시키다. 7. (곤란을 물리치고) ...에 도달하다. 8. (광석을) 찾아 파내다, (채굴 설비를) 설치하다, (광산을) 개발하다, (금속을) 추출하다. 9. 흙치다

	7. <남>을 끌어당기다;;<남>을 설득하여 (...에 따르게)하다; 8. <광석>을 찾아내다, 채굴하다; <채굴 설비>를 하다; <광산>을 개발하다 9. <<속어>> ...을 훔치다	
--	---	--

위의 <표1>에 나열된 기존의 영한사전 3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각 영한사전의 ‘이기다’의 첫 번째로 정의된 뜻을 살펴보면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은 ‘(싸워서)이기다’로 YBM(Si-sa) 영한사전은 ‘(전쟁, 싸움, 경쟁, 내기 따위)에 이기다, 승리하다’로 정의하며 Essence 영한사전은 ‘(경쟁, 경기 따위에서) 이기다’로 각각 정의되어 ‘win’의 기본의미인 ‘이기다’의 의미는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겨루어 이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명을 보이고 있으며 ‘이기다’ 이외의 다른 의미들은 대부분 통일되지 못해 규칙성을 찾기 어렵고 여러 개의 의미를 두서없이 나열해 놓아 각각의 의미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한국어 의미들이 한가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되어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 프라임 사전의 경우 ‘얻다’라는 한국어 의미가 2,4,7번에 나타나 있고 YBM(Si-sa) 사전의 경우 2,3,4번에 중복되어 제시되고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COCA 코퍼스를 이용해 영어동

사 ‘win’의 명사 연어의 빈도수 및 특징을 토대로 우리말 번역에 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Ⅲ. ‘win’의 의미와 유형

이 장에서는 COCA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어 동사 ‘win’의 명사언어를 언어의 결합도를 나타내는 MI수치⁵⁾ 1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명사 중 명사언어 빈도수치(FREQ) 상위 100개⁶⁾를 추출하여 그 중 65개⁷⁾의 명사들을 이용하여 그 명사들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여 살펴보고 기존의 사전적 의미와 비교하고 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5) COCA는 단순히 개별적으로 빈도 높은 언어 뿐 아니라, 특정 어휘와 의미적으로 상관성이 높고 선호도가 높은 언어에 대한 정보인 어휘간의 언어 값을 MI(mutual information: 두 언어간의 상호 정보교류의 정도)로 제시하는데 이 때 MI수치가 0 이상이면 두 언어는 유의미한 결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MI가 높으면 높을수록 두 언어의 상호간의 정보 공유정도가 높고 결합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심지영, 2010)

6) COCA 코퍼스의 빈도수가 상위 100개로 한정되어 있어, 그 이하의 결과는 본 연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7) ‘win’의 명사 목적어 빈도수치 상위 100개 중 65개의 단어만 사용하였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명사가 단수, 복수형으로 중복되어 나타날 때 그 빈도수가 낮은 것
 2. wins and losses(이익과 손실)과 같이 복합명사로 나타날 때
 3. win this year과 같은 부사절로 나타날 때
 4. win ... over(~를 설득하다)처럼 2어 동사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 와 같이 총 35개는 제외 하였다.

3.1 ‘win’ 의 의미별 빈도

검색된 명사 연어 65개를 각 의미별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동사 ‘win’의 의미별 빈도수

동사 ‘win’의 의미	빈도수 (65개)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	28개 (43.1%)
받다/얻다	26개 (40.0%)
따다/따내다	6개 (9.1%)
쟁취하다	2개 (3.0%)
당첨되다	1개 (1.5%)
잡다	1개 (1.5%)
확보하다	1개 (1.5%)

코퍼스에서 추출된 총 65개의 명사연어 단어들을 꼬꼬마 말뭉치를 이용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조사해본 결과는 위의 〈표2〉와 같이 나타났다. 첫 번째로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로 번역된 경우가 28개(43.1%)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받다/얻다’로 번역된 경우는 26개(40.0%)로 그 뒤를 이었으며 ‘따다/따내다’가 6개(9.1%)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쟁취하다’가 2개(3.0%), ‘잡다’, ‘당첨되다’, ‘확보하다’가 각각 1개(각각1.5%)의 명사연어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2 ‘win’의 의미 유형별 언어

본 연구는 영어 동사 ‘win’의 명사언어들이 앞에서 살펴본 기존 영어사전에서의 첫 번째 기본 의미인 ‘이기다’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때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살펴보고 COCA 코퍼스를 토대로 한 명사언어 빈도수에 따른 새로운 영한사전의 순서와 의미를 제시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미를 쉽게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의는 <표2>에서 나타난 동사 ‘win’의 의미별 빈도수의 순서에 따른다.

3.2.1.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

앞서 <표2>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65개의 명사언어 중 28개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영어동사 ‘win’이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의 의미로 번역될 때 결합하는 명사언어를 첫 번째 정의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표3>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언어

동사	뜻	명사 언어의 예
win	이기다 승리하다 우승하다	game(1559), war(1538), election(1187), race(654), championship(638), state(602) battle(586), series(485), case(400), division(374), tournament(302), re-election(251), majority(244),

		fight(208), masters(195), contest(180), argument(162), primary(157), playoffs(152), conference(138), debate(127), competition(126), majors(123), league(122), district(121), event(101), match(99), bet(85)
--	--	--

위 표를 보면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언어는 총 65개의 명사 중 28개(43.1%)이며 문장 빈도수는 총 11,0016 개로 가장 높게 나왔다.

명사언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를 토대로 우리말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 1) 이기다 :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승부를 내다.
- 2) 승리하다 : 겨루어서 이기다.
- 3) 우승하다 : 경기, 경주 따위에서 이겨 첫째를 차지하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 세 단어 모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상대와 경쟁관계에서 서로 버티거나 싸워 승부를 겨루어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세 단어들의 의미가 유사해 서로 연관 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세 단어들이 서로 대체되어도 자연스러운 번역

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3) a. we can win this game if we do these things well.

b1. 우리가 이것들을 잘하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

b2. 우리가 이것들을 잘하면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어.

b3. 우리가 이것들을 잘하면 이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어.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win this game’ 이 (b1,2,3)과 같이 한국어로 번역 될 때 ‘게임에서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세 문장은 쓰임과 의미면에서 차이가 없이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예문3>과 같이 세 단어가 항상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비슷한 의미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 세 단어들이 명사연어와 결합해 우리말로 해석될 때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들과 더 잘 결합되어 쓰이는지 꼬꼬마 검색 결과⁸⁾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때 ‘이기다’와 ‘승리하다’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한자어 명사 ‘승리(勝利)’는 한글 ‘이김’과 동의어로 한자어 ‘승리’ 뒤에 우리말 접미사 ‘하다’를 붙여 동사를 만든 단어로 ‘이기다’와 그 의미면에서 매우 비슷하며 대부분의 명사 연어가 대체되어도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정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위에 제시한 ‘우승하다’의 표준 국어대사전의 내용을 살펴보자. ‘경기나 경주 등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이기다’로 정의하며 상대방과 겨루어 이기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이기다/승리하다’와 의미가 매우 유사하지만 ‘우

8) 영어 명사의 한국어 의미를 꼬꼬마에서 검색했을 때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 동사 3가지와 결합하는 동사가 검색되지 않을 때는 google 검색 및 필자의 직관에 의존한다. 이는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하다’는 다수의 대상을 상대로 겨루어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 단어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우승하다’는 또 다른 범주로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 세 가지 단어를 ‘이기다/승리하다’와 ‘우승하다’로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A. 이기다/ 승리하다

아래의 표는 영어동사 ‘win’이 ‘이기다/승리하다’의 의미로 번역될 때 결합하는 명사들을 보여준다.

<표4> ‘이기다/승리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언어

동사	뜻	명사 언어의 예
win	이기다 승리하다	game(1559), war(1538), election(1187), state(602) battle(586), case(400), re-election(251), majority(244), fight(208), argument(162), primary(157), debate(127), competition(126), district(121), match(99), bet(85)

위 <표4>을 살펴보면 ‘이기다/우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언어는 총 16개로 election, state, re-election, district 등과 같은 선거와 관련된 명사들과 argument, fight, debate 등과 같이 투쟁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다.

그리고 ‘이기다/우승하다’와 결합하는 모든 명사는 추상명사⁹⁾로 나타났다.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4) a. The best chance to win this election is to nominate a conservative to go up against Barack Obama.

b. 이 선거에서 승리할/이길 최고의 기회는 오바마에 대항할 보수주의자를 지명하는 것이다.

예문(4)에서 오바마를 상대로 겨루어 선거에서 이기다 혹은 승리한다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B. 우승하다

아래의 표는 동사 ‘win’이 ‘우승하다’의 의미로 번역될 때 결합하는 명사 언어들의 예를 보여준다.

〈표 5〉 ‘우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언어

동사	뜻	명사언어의 예
win	우승하다	race(654), championship(638), series(485), division(374), tournament(302), masters(195), contest(180), playoffs(152), conference(138), majors(123),

9) Givon(1993)의 명사 분류에 따르면 명사는 구체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는 개체를 부호화하는 구체(concrete)명사,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체를 부호화하는 시간(temporal)명사, 그 존재를 시간이나 공간 중 어느 관점에서든 정의할 수 없는 실체를 부호화하는 추상(abstract)명사이다.

		league(122), event(101)
--	--	-------------------------

위 <표5>를 살펴보면 ‘우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들은 총 12개로 championship, race, playoffs 등과 같이 경기나 대회에 관련된 단어들이며 역시 모든 명사가 추상 명사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예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4) a. They no doubt felt that, after their many disappointments, they deserved to win a championship.

b. 많은 실망을 한 뒤로 그들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위 (4)번 예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선수권 대회의 경우 보통 하나의 대상 보다는 다수를 대상으로 겨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중에서 그들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2.2 ‘받다/얻다’

아래의 표는 영어동사 ‘win’이 ‘받다/얻다’로 번역될 때 결합하는 명사 언어들의 예를 보여준다.

〈표6〉 ‘받다/얻다’ 와 결합하는 명사 언어

동사	뜻	명사 언어의 예
win	받다	support(636), awards(557), oscar(526), approval(497), prize(457), nomination(434), title(367), hearts(354), pulitzer(302), academy(273), votes(239), praise(238), control(224), right(208) emmy(200), heisman(176), cup(153), respect(136), scholarship(134), fame(125), freedom(125), acclaim(128), grammy(127), pennant(123), points(118), trust(103)

위 〈표6〉과 같이 ‘받다/얻다’ 와 결합하는 명사 언어는 총 65개의 중 26개로 40.0%를 차지하며 문장빈도수는 총 6847개로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 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우선 명사언어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말 ‘받다’ 와 ‘얻다’ 의 의미를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통해 살펴보자.

1) 받다

- a.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 b. 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
- c.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2) 얻다

- a. 거저 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

- b. 긍정적인 태도 · 반응 · 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
- c.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
- d. 돈을 빌리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받다’는 ‘1a)’의 의미이며 ‘얻다’는 ‘2a)’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이때 ‘받다’와 ‘얻다’ 모두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두 단어는 유의어인 만큼 서로 대체하여 번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5) a. The plan won the support of 44 and 46 senators.
- b1. 그 계획은 44번과 46번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 b2. 그 계획은 44번과 46번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었다.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win this support’는 (b1,2)과 같이 한국어로 번역 될 때 ‘지지를 받다/얻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두 문장은 쓰임과 의미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이 모두 어색함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꼬꼬마 말뭉치 검색 결과 우리말 명사 ‘지지’와 ‘받다’의 결합빈도수는 99개(1.14%)이며 명사 ‘지지’와 ‘얻다’의 결합빈도수는 78개(0.90%)로 나타나 두 단어들의 사용 빈도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기다/승리하다’와 ‘우승하다’의 의미들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듯 ‘받다’와 ‘얻다’ 역시 두 단어가 항상 대체되어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렇듯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받다’와 ‘얻다’ 두 단어의 차이는 ‘받다’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것을 “취

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얻다’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남이 주는 것을 “거저 취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Longman 영영사전에 있는 ‘win’의 의미를 살펴보면 ‘get/achieve : to get something that you want because of your efforts or abilities [= gain]’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노력이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다’의 의미로 한국어 ‘받다/얻다’와는 다르게 무언가를 노력하여 투쟁하여 힘겹게 얻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은 이 두 단어들이 우리말로 해석될 때 각각 어떤 단어들과 더 잘 결합되는지 꼬꼬마 검색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구분해 보았다.

A. 받다

아래의 표는 영어동사 ‘win’이 ‘받다’로 번역될 때 결합하는 명사 언어들의 예를 보여준다.

<표 7> ‘받다’와 결합하는 명사 언어

동사	뜻	명사 언어의 예
win	받다	support(636), awards(557), oscar(526), approval(497), prize(457), nomination(434), pulitzer(302), academy(273), praise(238), emmy(200), heisman(176), cup(153),

		respect(136), scholarship(134), acclaim(128), grammy(127), pennant(123), trust(103)
--	--	--

위 <표7>의 결과를 살펴보면 ‘받다’와 함께 결합되는 명사언어 18개 중 대부분인 11개의 명사가 결합되며 총 5188개의 문장빈도수가 나타났다. 업적이나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을 받다’의 의미로 사용되며 ‘oscar, pulitzer, academy, emmy, heisman, grammy’와 같이 상의 이름이나 그와 관련된 단어들이었는데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들이 추상명사인 것과 다르게 ‘받다’와 결합하는 상에 관련된 명사들은 구체명사로 나타났다. 그리고 support, respect, praise 등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는 명사와 approval, nomination과 같은 단어도 있는데 ‘받다’와 결합하는 명사들 중 상에 관련된 단어들을 제외하고 모두 추상명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6) a. Although he could not win the **approval** of higher administration, he was a ray of hope in the darkness.
- b. 그가 상부 관리직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어둠속의 한줄기 빛이 있었다.

위 예문의 목적어는 추상명사인 ‘승인’으로 타인인 상부 관리직에 의해 주어지며 ‘승인을 받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됨을 확인할 수 있다.

B. 얻다

아래의 표는 동사 ‘win’ 이 ‘얻다’ 의 의미로 번역될 때 결합하는 명사 언어의 예이다.

〈표8〉 ‘얻다’ 와 결합하는 명사 언어

동사	뜻	명사 언어의 예
win	얻다	title(367), hearts(354), votes(239), control(224), fame(125), freedom(125), points(118), right(208)

위의 표를 살펴보면 ‘얻다’ 의 의미로 번역되면서 결합하는 명사는 8개이며 총 문장 빈도수는 1,659개이며 ‘얻다’ 와 결합되는 명사들은 모두 감정, 점수를 나타내는 추상명사로 나타났다.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7) a. They'll make important discoveries and win fame and glory.
 b. 그들은 중요한 발견을 해서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될 거야.
 c. *그들은 중요한 발견을 해서 명예와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위 예문의 목적어인 ‘fame’ 이 ‘win’ 과 결합하며 ‘명예를 얻다’ 라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명예를 받다’ 라고 번역을 한다면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3.2.3 따다/ 따내다

아래의 표는 동사 ‘win’ 이 ‘따다/따내다’ 의 의미로 번역될 때 결합하는 명사 연어의 예를 보여준다.

〈표9〉 ‘따다/따내다’ 와 결합하는 명사 연어

동사	뜻	명사 연어의 예
win	따다 따내다	gold(1077), \$(369), medals(350), bronze(222), silver(199), contract(139),

총 65개의 명사 연어 중 6개(9.0%)의 명사가 ‘따다/따내다’ 의 의미로 번역되면서 결합하였고 총 문장 빈도수는 총 2,217개로 추상명사인 contract를 제외하고는 내기나 시험에서 이겨서 받는 물품을 나타내는 구체명사로 나타났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따다’ 와 ‘따내다’ 의 정의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따다

1. 자연적으로 달렸거나 붙었거나 뚫은 것을) 잡아떼다.
2. 진집을 내거나 찢어서 터뜨리다.
3. 붙었거나 막힌 것을 뜯거나 트다.
4. (어떤 글이나 사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 뽑아 쓰다
5.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이겨) 돈이나 물건을 손에 넣다
6. (자격이나 점수 따위를) 얻거나 받다.
7. (전체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다.

2) 따내다

1. 노름, 내기, 경기 따위에서 이겨 돈이나 상품 따위를 얻어 내다.
2. 점수나 자격 따위를 얻어 내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한국어의 ‘따다’의 정의 중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어명사는 ‘돈, 금, 은, 동메달 등을 따다’로 번역되어 5번 뜻인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 이겨) 돈이나 물건을 손에 넣다’의 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내다’의 정의 중 1번은 ‘따다’의 5번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서로 대체되어 번역되어도 어색함이 없으므로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

‘따다/따내다’로 번역되는 명사연어들이 두 의미 중 어떤 단어와 더 자주 결합되는지 분석해 보니 그 결과는 총 6개의 단어 중 1개의 명사 ‘contract’는 ‘따내다’와 결합빈도가 더 높았고 나머지 5개의 구체 명사들은 ‘따다’와 결합빈도가 높았다. 아래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8) a. Just six American skiers have ever won two medals in a single Olympics.

b. 오직 여섯 명의 미국 스키선수만이 단일 올림픽 대회에서에서 두개의 메달을 땀다/따냈다.

(9) a. She had won the contract for his company's data processing work.

b. 그녀는 그의 회사에서 데이터 작업 건에 관한 계약을 땀다/따냈다.

위 (8)번 예문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다’로 번역이 되었는데 ‘따내다’를 사용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번 예문에서도 ‘계약을 따다’와 ‘계약을 따내다’ 두가지 모두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우리말 ‘따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힘이나 노력을 들여서 어렵게 성사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따내다’로 번역할 경우 ‘따다’로 번역할 때보다 그 의미가 더 강하게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2.4 쟁취하다

아래의 표는 동사 ‘win’이 ‘쟁취하다’의 의미로 번역될 때 결합하는 명사 언어의 예를 보여준다.

〈표11〉 ‘쟁취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언어

동사	뜻	명사 언어의 예
win	쟁취하다	independent(109), peace(98)

총 65개의 명사 언어 중 2개(3.0%)의 명사가 ‘쟁취하다’의 의미로 번역되면서 결합하였고 총 문장 빈도수는 207개이며 2개의 명사 모두 추상명사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쟁취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싸워서 빼앗아 가지다’로 나타나는데 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투쟁, 싸움 등의 과정을 거쳐 힘들게 겨루어 싸워서 얻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0) a. After decades of internal violence in Sudan, the South won
its independence in a 2011 referendum.

b. 수단의 수십 년에 걸친 내부 분쟁 이후에 남단은 2011 국민투
표로 독립을 쟁취하였다.

위 예문의 번역을 살펴보면 수단의 남단이 독립을 하는데 있어 내부분
쟁이라는 과정을 수십 년에 걸쳐 겪은 후 결코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힘들게 얻은 것이며 여기서 ‘쟁취한’이라는 한국어 동사와 결합되어
번역되었다.

3.2.5 당첨되다

아래의 표는 동사 ‘win’ 이 ‘당첨되다’의 의미로 번역될 때 결합
하는 명사 언어의 예를 보여준다.

〈표12〉 ‘당첨되다’와 결합하는 명사 언어

동사	뜻	명사 언어의 예
win	당첨되다	lottery(447)

총 65개의 명사 언어 중 1개(1.5%)의 명사가 ‘당첨되다’의 의미로
번역되면서 결합하였고 총 문장 빈도수는 447개이며 ‘복권’이라는 구
체명사와 결합되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당첨되다’의 뜻을 살펴보면 ‘제비, 추첨에 뽑히다’의 의미로 정의되며 ‘당첨되다’라는 단어는 노력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운에 의해 얻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당첨되다’와 결합하는 명사 연어로는 ‘lottery’가 있으며 다음 예문과 같이 번역된다.

- (11) a. A college student named Janet has finally won the lottery.
 b. 자넷이라는 대학생이 드디어 복권에 당첨 되었어.

위 예문에서 ‘복권에 당첨되다’로 번역되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다.

3.2.6 잡다

아래 표는 동사 ‘win’이 ‘잡다’의 의미로 번역될 때 결합하는 명사 연어의 예를 보여준다.

〈표13〉 ‘잡다’와 결합하는 명사 연어

동사	뜻	명사 연어의 예
win	잡다	presidency(398)

총 65개의 명사 연어 중 1개(1.5%)의 명사 연어가 ‘win’과 결합되면서 ‘잡다’로 번역되었고, 빈도수는 398개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잡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손으로 움키거나 거머쥐다.
2. (범인 따위 쫓는 사람을) 검거하다, 체포하다.
3. 선택해 가지다, 선정하다.
4. (탈 것을 타려고) 세우다.
5. (권리, 세력 따위를) 차지하다.
6. (담보나 저당으로) 맡아가지다.
7. (남의 결점이나 비밀, 또는 사건의 단서 따위를) 찾아내다, 알아내다.

의 10가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한국어동사 ‘잡다’라는 단어를 보면 보통은 ‘물건 등을 손으로 잡다’라는 의미를 떠올리기 쉬우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온 ‘presidency’와 결합되는 정의는 5번 의미인 ‘(권리, 세력 따위를) 차지하다’이며 명사언어 ‘presidency’가 동사 ‘win’과 결합할 때 ‘대권을 잡다’의 의미로 번역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2) a. The reason this race isn't over on the Democratic side is because people have not decided that Barack Obama can win the presidency.

b. 민주계에서 그 경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가 대권을 잡는 것을 결정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예문을 보면 대통령 오바마가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는 의미

로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2.7 확보하다

아래의 표는 동사 ‘win’ 이 ‘확보하다’ 의 의미로 번역될 때 결합하는 명사 언어의 예를 보여준다.

<표14> ‘확보하다’ 과 결합하는 명사 언어

동사	뜻	명사 언어의 예
win	확보하다	seats(219)

총 65개의 명사 언어 중 1개(1.5%)의 명사가 ‘확보하다’ 의 의미로 번역되면서 결합하였고 총 문장 빈도수는 219개로 나타났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확보하다’ 의 뜻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보유하다, 확실하게 보증하다’ 의 의미로 정의되며 ‘확보하다’ 와 결합되는 명사언어 ‘seats’ 가 사용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3) a. The Democrats need only win 15 seats to take control of the House.

b.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15개의 의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위 예문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15개의 의석을 확실히 보장받지 않으면 하원을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확보하다’ 라는 단어로 번

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영어 동사 ‘win’의 우리말 의미를 총 7가지로 정리하였고 마지막장에서는 결론으로 지금까지 알아본 ‘win’의 명사연어 빈도수를 기초로 한 영한사전의 정리를 하도록 한다.



IV. 결론

본 논문은 2장에서 다루었듯이 우리나라 기존 영어사전마다 각 단어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고 이로 인해 영어 학습자들이 어휘를 학습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표로 연구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대 미국 코퍼스인 COCA와 꼬꼬마 세종말뭉치 및 ‘google’ 검색을 이용해 영어동사 ‘win’의 실제적 쓰임을 명사언어를 통해 동사가 명사언어와 결합하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코퍼스 프로그램으로 영어동사 ‘win’의 명사언어 빈도수 상위 100개를 추출하여 그 명사언어 중 단수, 복수가 중복되는 명사와 복합명사로 이용되는 명사, 부사 및 2어 동사를 제외한 65개의 명사언어를 분석해 영어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어동사 ‘win’의 연어명사의 빈도수를 토대로 가장 많이 나타난 의미를 1번부터 7번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때 각 번호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가 아주 유사해 서로 대체가 가능해 그 번호의 의미를 학습할 때 혼란이 없도록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로 번역된 경우가 29개,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단어들을 다시 ‘이기다/승리하다’와 ‘우승하다’로 나누어 ‘이기다/승리하다’는 17개, ‘우승하다’는 12개의 빈도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받다/얻다’로 번역된 경우는 26개로 39.4%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 단어들도 ‘받다’는 18개, ‘얻다’는 8개의 빈도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따다/따

내다’가 6개(9.1%)로 나왔으며 ‘쟁취하다’는 2개(3.0%), ‘잡다’, ‘당첨되다’, ‘확보하다’가 각각 1개(각각1.5%)의 명사언어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정리 내용을 토대로 한 영어동사 ‘win’의 의미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영한사전 동사 ‘win’의 의미>

1. 이기다/승리하다/우승하다
 - a. win the election 선거에서 이기다/승리하다
 - b. win a championship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다
2. 받다/얻다
 - a. win the approval 승인을 받다
 - b. win fame 명성을 얻다
3. 따다/따내다
 - a. win medals 메달을 따다
 - b. win the contract 계약을 따내다
4. 쟁취하다
win the independence 독립을 쟁취하다
5. 당첨되다
win the lottery 복권에 당첨되다
6. 잡다
win the presidency 대권을 잡다
7. 확보하다
win seats 의석을 확보하다

본 논문의 결과로 나온 사전 의미가 영어 학습자들이 동사 ‘win’의 쓰임을 더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영어 어휘들에 대한 간결한 정의를 내리는 다양한 객관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광윤. (2012). Different from/than/to의 코퍼스 기반 분석. 「언어학」 20(1), 193-210.
- 권혁승. (2008). 코퍼스 언어학의 실제 및 응용. 「응용언어학」 24(3), 1-30.
- 김윤정. (2005). 대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학생들의 영작 실력 및 영어 능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11(4), 189-208.
- 김종현. 「언어의 이해」. (2009). 태학사.
- 「동아프라임영한사전」. (2002). 서울: 두산동아.
- 박현숙. (2013). 언어를 활용한 영어 능력 향상 방향. 「언어학연구」 26, 111-127.
- 심지영. (2009).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see와 watch의 의미와 언어 비교」.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심지영. (2010). finish와 end의 의미와 언어 비교연구. 「현대 문법 연구」 62, 227-252.
- 「엡센스 영한사전」. (2005). 서울: 민중서림.
- 이원주. (2013). 「동사 ‘pick’의 목적어 언어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이화진. (2013). 「영한사전 개선을 위한 형용사 ‘strong’의 명사언어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이포유 e4u 영한사전」. (2008). 서울: YBM/Si-sa.

- 정연창. (2011). Pretty의 사용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언어연구」 28(2), 329-354.
- 정연창, 서려임, 김은일. (2007). 코퍼스에 기반한 한국 대학생의 영어 유의어 동사의 언어능력에 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175-194.
- 정연창, 서원석, 김은일. (2009). 한국 고등학생의 ‘-ic/-ical 형용사+명사’ 언어 능력에 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51(4), 249-276.
- 정영국. (2007). 영한 이중어 사전의 대응어 고찰 : BBI 언어 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9, 75-97.
- 「표준국어 대사전」. (2008). 국립 국어원.
- 하윤정. (2012). 「영어동사 ‘open’ 과 한국어 동사 ‘열다’의 목적어 명사 언어 비교」. 석사학위 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Benson, M., Benson, E. & Ilson, R. (1997a).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 Carter R. (1998). *Vocabulary*. London: Allen and Unwin.
- Firth, J R. (1951). *Modes of meaning*. In *Papers in Linguistics* 1945-5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von, T. (1993). *English Grammar 1*.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Kjellmer, G. (1987). Aspects of English Collocations. In W. Meijs (ed.), *Corpus Linguistics and Beyond: Processing of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lish Language Research on Computerized Corpora*, 133-140. Amsterdam: Rodopi.
-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the Way*

Forward. Hove, U.K.: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2009). Pearson Longman.

Sinclair, J.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